

광주FC K리그1 복귀전 성남과 격돌

3월1일 정규R 홈 개막전

77년생 동갑내기 사령탑
박진섭vs김남일 지략 대결
새 구장은 6월21일 포항전

K리그1 복귀를 앞두고 담금질에 한창인 박진섭 광주FC 감독은 개막전 상대로 성남FC 또는 포항 스틸러스를 희망했다. 성남과는 동갑내기 김남일 감독과의 사령탑 맞대결로, 포항과는 역대전적 무승 기록을 깨기 위한 도전 차원의 바람이자 아이디어였다. 그리고 박 감독의 바람이 성사됐다. 성남과는 리그 개막전을, 포항과는 새 전용구장 오픈 경기를 하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하나원큐 K리그1 2020 정규 라운드(1라운드~33라운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광주FC는 3월 1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성남과 개막전 맞대결을 벌인다. 광주가 홈에서 K리그1 경기



광주FC 박진섭 감독



성남FC 김남일 감독

를 치르는 것은 2017년 11월18일 포항과의 홈경기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이슈는 역시 77년생 동갑내기 사령탑의 지략 대결이 될 전망이다.

한국축구 국가대표 레전드인 김남일 감독은 선수 시절 K리그 및 해외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지도자로 평가받았다. 남기일 감독 사퇴 이후 2020시즌 팀을 이끌

새 사령탑을 물색하던 성남은 김남일 감독을 선임했다.

K리그2에서 2년 만에 우승을 일구며 지도력을 인정받은 박진섭 감독은 성남을 상대로 K리그1에서의 첫승을 노리고, 초보 지도자 김남일 감독은 지도자로서의 첫승을 노리는, 물러날 수 없는 맞대결이 예상된다.

성남과의 경기는 지난 2018년 10월 13일 2-2 무승부 이후 1년5개월만이다. 최근 10경기 전적은 2승6무3패이며 통산전적은 5승6무6패다.

정규라운드 공식 개막전은 2월 2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시즌 K리그1 우승팀 전북과 FA컵 우승팀 수원 경기로 확정됐다.

광주는 홈 개막전에서 성남을 상대한 뒤 3월 7일 승강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격한 부산 아이파크와 원정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 건립중인 축구전용구장은 완공이 늦어지면서 6월부터 사용하게 된다.

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2020시즌 일정에 따르면 전용구장에서의 첫 경기는 6월21일 포항전이다. 단, 광주FC는 그 전이라도 구장 사용승인이 되면 앞당겨 경기를 치른다는 계획이다.

정규라운드 공식 개막전은 2월 2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9시즌 K리그1 우승팀 전북과 FA컵 우승팀 수원 경기로 확정됐다.

지난 시즌 아쉬운 2위를 기록한 울산은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동시에 대구가 강원을 상대로 DGB대구은행파크에서의 두 번째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라이벌인 서울과 수원의 '슈퍼매치'

는 3월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과 포항의 '동해안 derby'는 4월 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처음으로 팬들을 찾는다. 지난 시즌 치열했던 우승경쟁의 주인공인 전북과 울산의 첫 대결은 4월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K리그 팬들의 '봄꿈'을 함께할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올 시즌에도 계속된다. 각 팀 당 1회씩 총 12번의 금요일 야간경기가 개최된다. 올 시즌 첫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5월 1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강원과 포항의 맞대결이다. 광주FC의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7월3일 오후 7시 전용구장에서 부산을 상대로 열린다.

K리그1 정규라운드 일정은 약 30여 개의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일정 가운데 가장 균형 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했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 ▲ACL 출진팀 일정 고려 ▲주말 휴경기 분산 개최 ▲평일 금요일 홈경기 1회 개최 ▲정규라운드와 파이널라운드 간 홈-원정 경기 균등 배정 등이다. /최진화 기자

S 스포츠

14 전남매일

2020년 1월 14일 화요일



쇼트트랙 대표팀 최민정이 13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이번 대회에서 획득한 금메달 5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 4대륙대회 전관왕

'돌아온'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이 4대륙선수권대회 전 종목 우승을 달성하며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13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4대륙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여자 1,000m, 여자 3,000m 슈퍼파이널, 여자 3,000m 계주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

그는 전날 여자 1,500m와 여자 500m에서 우승한 데 이어 여자부에 걸린 5개의 금메달을 모두 차지했다.

최민정은 여자 1,000m에서 1분32초71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레이스 종반까지 뒤에서 기회를 노리던 최민정은 결승선까지 3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를 노려 2위로 올라섰다.

이어 한 바퀴를 남기고 다시 아웃코스에서 질주해 선두를 달리던 캐나다의 코트니 사라울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김아랑(고양시청)은 동메달, 서휘민(평촌고)은 4위에 랭크됐다.

개인 3개 종목을 모두 우승한 최민정은 상위 8명의 선수가 경쟁하는 여자 3,000m 슈퍼파이널에 진출해 다시 금메달을 추가했다.

그는 경기 초반 독주를 펼쳐 다른 선수들과 두 바퀴 차이를 낸 뒤 5분17초130의 기록으로 여유롭게 우승했다.

2위는 김아랑, 3위는 서휘민이 차지했다.

최민정은 종합 순위에서 136점으로 초대 우승자가 됐다.

최민정은 이어 열린 여자 3,000m 계주에서도 김아랑, 김지영(성남시청), 노아름(전북도청)과 함께 4분11초404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수확했다. /연합뉴스



하늘을 날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2020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알파인스키 여자부 본선에서 한국 대표 이하은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김학범호 내일 우즈베크와 3차전

무패 조 1위 도전...비겨도 8강 진출

"우즈베키스탄전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선수 조합만 잘해주면 됩니다."

패조의 2연승으로 일찌감치 8강행 티켓을 따낸 김학범호가 2020 아시아 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조별리그 C조 최종전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무패 조 1위'에 도전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3 축구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7시 15분 태국 랑싯의 탐마삿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중국(1-0승)과 이란(2-1승)을 잇달아 격파한 한국은 승점 6으로 조 1위를 지킨 가운데 이란(1-1무)과 비기고 중국(2-0승)을 꺾은 우즈베키스탄(승점 4)은 2위에 랭크됐다. 1무 1패의 이란(승점 1)이 3위, 2패를 떠난 중국이 꼴찌다.

승점 6으로 최소 조 2위를 확보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전 결과에 따라 C조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최소 비기지만 해도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다.

◇우즈베크전에도 '깜짝 전술' 펼쳐질까

김학범 감독은 12일 태국 송클라의 틴살라네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 대회 조별리그 2차전에 '파격 전술'을 꺼내 들었다. 중국과 1차전에 나섰던 필드플레이어 10명 가운데 무려 7명을 바꾸는 '깜짝 변화'였다.

선수들의 대폭 변화로 조직력이 격상됐지만 오히려 태국전사들은 이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잡으면서 전반에만 2골을 뽑아내는 성과 속에 2-1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김 감독은 "대표팀을 꾸리는 단계부터 다양한 선수 조합을 준비했다. 지금은 누가 '베스트 11'이라고 할 수 없다. 장단점이 있는 선수들이라 조합만 잘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 1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선수들의 템포 대로 경기를 준비하겠다"라며 "이미 이번 대회에 앞서 조별리그에서 상대할 세 팀에 대한 준비는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C조	승	무	패	승점
1 한국	2	0	0	6
2 우즈베키스탄	1	1	0	4
3 이란	0	1	1	1
4 중국	0	0	2	0

◇골잡이 오세훈 '생일 자축포' 기대...정우영, 우즈베크 상대 2경기 연속골 도전

이번 대회 조별리그는 경기 사이 간격이 이틀밖에 없어 어느 때보다 선수들의 체력관리가 중요하다.

김학범 감독이 이란과 2차전에 선수를 대거 바꿔 출전시킨 것 역시 전술적 준비와 더불어 체력 관리의 의미도 크다.

그런 의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3차전에는 장신 스트라이커 오세훈(상주)이 다시 출격할 공산이 크다. 공교롭게도 오세훈은 우즈베키스탄전이 열리는 15일이 자신의 만 21세 생일이다. 그는 1999년 1월 15일생이

한국 경기 일정
대한민국 1 : 0 중국
대한민국 2 : 1 이란
1월15일 오후 7시15분 vs 우즈베키스탄

다. 지난해 U-20 대표팀에서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다 김학범호로 '월반'한 오세훈은 이란전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조규성(안양)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즈베키스탄전 득점이 꼭 필요하다.

또한 명 '각성'을 해야 하는 선수가 있다.

바로 김학범호의 유일한 '유리과' 정우영(프라이부르크)이다.

정우영의 김학범호 데뷔골은 지난해 10월 우즈베키스탄과 평가전에 나왔다. 정우영의 우즈베키스탄전 2경기 연속골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전남체전 경기분야 회의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보성군에서 전남도, 보성군, 경기단체 등 4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8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경기분야 회의를 개최했다.

제28회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보성에서 개최된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이날 대회 개최 계획, 참가요강, 경기용기구 협의, 주요 중요사항 논의와 함께 종목별 경기장 시설 및 승인을 위한 체육시설 답사를 진행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제57회 전남체전을 개최한 경험을 최대한 발휘, 열악한 체육시설 환경이지만 선수들이 최대한 보행과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인 눈높이에서 감동·화합체전이 되도록 군민들과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임성재 새해 첫대회 막판실수

소니오픈 톱 10 입상 놓쳐

임성재(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막판 실수로 톱 10 입상을 놓쳤다.

임성재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래이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PGA투어 소니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21위(6언더파 275타)로 대회를 마쳤다. 2019-2020년 시즌 세 번째이자 올해 첫 톱10 입상이 유력했던 임성재는 16번홀(파4) 트리플볼기가 못내 아쉬웠다.

1번(파4), 3번홀(파4) 버디로 선두 브랜던 스틸(미국)에 3타차로 따라붙은 임성재는 톱10은 물론 우승도 가능한 순위였다. 4번(파3), 6번홀(파4)에서 보기를 적어내며 우승 경쟁에서는 밀려났지만, 9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10위 이내 유지는 어렵지 않아 보였다.

6개월 연속 파 행진을 이어가던 임성재는 16번홀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옆 벙커에 빠지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벙커에서 친 세 번째 샷이 그린 왼쪽 벙커로 날아갔다.

이번에는 한 번에 벙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실수를 한 임성재는 5번 만에 그린에 올라와서는 1m가 채 되지 않은 더블보기 퍼트마저 놓쳤다.

한겨레에 3타를 잃어버린 임성재는 공동9위에서 공동27위로 추락했다.

임성재는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3m 버디 퍼트를 잡아넣으며 순위를 끌어 올려 그나마 위안이 됐다. /연합뉴스